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6, No. 3

OPEN ACCESS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한국의 교과서 변천과 내용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and Content Comparison of Textbooks for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in Korea

이 병 기 (Byeong-Ki Lee)*
이 상 훈 (Sang-Hun Lee)**
최 희 주 (Heeju Choi)***

〈 목 차 〉

Ⅰ. 서 론
Ⅱ. 정보활용교육의 배경과 교과서 개발의 의의
Ⅲ.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한국 교과서의 변천 과정
Ⅳ.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내용 비교 분석
Ⅴ. 시사점 및 향후 개선 방향
Ⅵ. 결론 및 제언

요 약 : 이 연구는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한국 교과서의 변천 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1996년 「정보와 매체」를 시작으로 교과서는 꾸준히 발전해 2025년에는 「도서관 리터러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등 전문화된 형태로 다양해졌다. 교과서 내용은 정보활용과정(정보탐색과 접근-정보분석과 해석-정보종합과 표현)을 중심으로 학교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개발 초기부터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Big6 모형이 대단원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멀티 모달, 멀티 리터러시 등 새로운 용어를 수용하며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향후 교과서 개발 방향으로는 '정보활용교육'이라는 법정 용어를 유지하며, 멀티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통합적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 등 전문 단체가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정보활용교육 교과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정식 교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공교육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정보활용교육, 교과서, 학교도서관, 교육과정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evolution and content of Korean information literacy textbooks, proposing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Starting with 「Information and Media」 in 1996, these textbooks have steadily evolved, becoming more specialized and diverse by 2025 with titles like 「Library Literacy」 and 「Media Information Literacy」. The textbook content is centered on the information utilization process (information seeking and access,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ynthesis and expression) and deepens progressively with each school level. From the beginning, the concepts of information and media literacy were included, and the Big6 model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structuring of major units. Recently, the inclusion of new terms like multimodal and multi-literacies reflects an effort to adapt to modern society's changing information landscape. The study suggests several directions for future textbook development: maintaining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as a legal term while building an integrated system that encompasses multi-literacies. It is also crucial f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like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to establish national standards. Ultimately, information literacy textbooks need to secure their status as official subject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nforcement Decree' to strengthen their position within public education.

KEYWORDS :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Textbook, School Library, Curriculum

* 공주대학교 교수, 학교도서관연구소 연구위원(lisdoc@kongju.ac.kr / ISNI 0000 0004 6460 4911) (제1저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관(law8311@ice.go.kr / ISNI 0000 0004 6763 549X) (교신저자)
*** 논산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memohee@naver.com) (공동저자)

• 논문접수: 2025년 8월 16일 • 최초심사: 2025년 9월 8일 • 게재확정: 2025년 9월 11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3), 87-109, 2025. http://dx.doi.org/10.16981/kliss.56.3.202509.87

※ Copyright © 2025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www.kci.go.kr

Ⅰ. 서 론

정보 리터러시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과거 텍스트 중심 사회의 리터러시가 문자 해독 능력에 국한되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텍스트 외의 여러 심볼(이미지, 소리, 영상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많아지면서 정보활용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정보 리터러시가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면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모든 유형의 도서관에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핵심 서비스로 등장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고 정보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보활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 초·중등학생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모델(Eisenberg & Berkowitz, 1990; Stripling & Pitts, 1988)이 다양하게 등장할 초창기부터 교과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공식적인 정보활용교육의 시작은 1996년에 발행된 고등학교 교과서 「정보와 매체」에서 비롯되었다. 이 교과서는 1995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발행되었으며, 국내에서 정보 리터러시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공식 교과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학생들이 정보와 매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 2002년에 「정보와 도서관」, 2011년에 「도서관과 정보생활」이 개발되었다. 또한, 2025년에는 「도서관 리터러시」, 「독서와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가 개발되었으며,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체계에 따라서 편성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도서관과 정보생활(이하 2022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한국도서관협회, 2025). 2025년에 개발된 「도서관 리터러시」, 「독서와 정보 리터러시」는 신설과목을 위한 교육자료 혹은 교재의 성격이 있으나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역사를 일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체계화하고 교수·학습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교재이다. 교과서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명확한 학습의 방향을 제시한다. 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한 교과서는 사회의 변화, 과학 기술의 발전, 새로운 가치관 등장과 교직 이론의 발전에 따른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채택 등 시대적인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어, 한국사, 체육, 수학, 영어 등 많은 교과의 경우 교과서 변천과 교과서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민회수, 조낙영, 2025; 이병규, 2020; 임재구, 2024; 조영미, 2022). 이러한 교과서 변천사 연구는 현재의

www.kci.go.kr

교육 내용과 방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고,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반면에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한국의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2011년도에 개발된 교과서(도서관과 정보생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내용 체계를 비교・분석한 연구(임정훈, 2024),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가 해당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김강선 외, 2023),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이병기, 2019), 교육격차에 따른 정보활용능력 격차 완화를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 서비스 사례 연구(강봉숙, 2018) 등이 있다.

이처럼 특정 시기 혹은 특정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다소 이루어지고 있으나 1996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발된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변천 과정이나 역사적 관점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6년에 처음으로 개발된 「정보와 매체」로부터 2025년에 개발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도서관과 정보생활」에 이르기까지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주요 내용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교과서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한국의 교과서 변천 과정은 4차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시기 별로 교과서 명칭의 변경, 적용 대상 학교급, 저자 및 특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과서의 주요 내용 비교・분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으로 나누고, 4차 시기에 걸쳐 학교 급별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내용 분석은 주로 각 교과서의 대단원과 중단원 수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인 학교급의 순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전개하지만, 본 연구의 교과서 내용 분석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기술하였다. 고등학교의 교과서가 내용이 깊고, 넓으며 점차 중학교, 초등학교로 갈수록 단순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내용을 먼저 기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Ⅱ. 정보활용교육의 배경과 교과서 개발의 의의

정보활용교육은 정보 리터러시를 신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보 리터러시는 Zurkowski(1974, 6)가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정보 도구와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그 후 다양한 학자와 기관에 의해서 다양한 관점의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고, 1989년 미국도서관협회의 대통령 직속 정보활용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문헌정보학계의 관심이 고조되었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1989).

www.kci.go.kr

Eisenberg와 Berkowitz(1990)가 정보문제해결을 위해 개발한 6단계 모형(Big6)이 미국을 비롯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의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학교도서관계에서 정보활용교육을 공식화한 것은 미국 AASL · AECT가 공동으로 제정한 '학생 학습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는 정보활용능력 즉, 정보 리터러시에 대해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비판적이며 능숙하게 정보를 평가하며, 창의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AASL & AECT, 1998, 1-2).

Eisenberg와 Berkowitz(1990)의 Big6 모형은 정보활용의 과정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인지적 도구(틀)라 할 수 있고, AASL · AECT의 '학생 학습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기준'은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지표 혹은 성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모형이나 기준만으로는 실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을 위한 교재 혹은 교과서가 있어야 한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서 제도가 없으며, 각 주에 따라 교과서에 관한 제도가 다르다. 즉 50개의 주가 그 주의 특성과 신념에 따라 교과서 발행제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규정하는 획일적인 교과서 제도가 없다(한국교과서협회, 2020).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직접 교과서를 관장하지 않고, 교사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령과 제도에 의해서 교과서를 개발·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과서 및 지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통칭하고 있고,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 및 그밖에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도서, 국정도서 혹은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로 구분할 수 있다(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829호). 인정도서의 선정 및 심의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한국의 교과서는 국정도서나 검정도서가 아닌, 인정도서에 해당한다.

교과서는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교육이념,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편집된 학습자료로서 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이며, 균형 있게 담고 있는 공식화된 교재이다. 교과서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학습 진행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김수동, 2009, 4).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변천사는 한국 학교도서관 교육의 발전사를 보여준다. 이러한 교과서는 과거 정보활용교육의 시대적 가치관을 이해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www.kci.go.kr

Ⅲ.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한국 교과서의 변천 과정

한국에서 정보활용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과서의 변천 과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4차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4차 시기로 구분한 것은 교과서 개발 연도는 물론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개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 교과서 명칭의 변경, 정보활용교육의 발전과 국제적 추세에 따른 교과서 개발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등장한 교과서의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최초의 교과서는 1996년에 발행한 「(고등학교) 정보와 매체」로서 1차 시기에 해당한다. 교과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1차 시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 없이 고등학교 단독 교과서로 개발되었다. 문헌정보학계의 교수와 현장의 사서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1995년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 당시 타 시·도 교육감이 인정한 교과서는 다른 시·도의 교육청 소속의 학교에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 당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 해당하며, 제6차 교육과정은 1992년에 고시되어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적용되었다. 한국에서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최초의 공식적인 교과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를 위한 교과서를 함께 개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2차 시기에는 교과서 명칭이 「정보와 도서관」으로 변경되었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함께 개발되었다. 「정보와 매체」라는 1차 시기의 교과서 명칭이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의 고유한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른 교과(컴퓨터, 국어 등)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도서관 중심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3차 시기에는 교과서의 명칭을 「도서관과 정보생활」로 변경하였고, 초등학교 대상의 교과서를 저학년(1-3학년용), 고학년(4-6학년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4책의 전집 형태로 개발하였다. 「도서관과 정보생활」로의 명칭 변경은 도서관을 통해 정보 리터러시를 기르며, 정보 리터러시는 학생들의 학습활동, 학교생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한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현장의 사서교사들이 인지적 발달 상태나 학습 방법, 생활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나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놀이 중심의 생활을 하며, 의존도가 높은 반면, 고학년은 점점 독립적인 생활 패턴을 형성해 나간다(도담샘, 2025).

3차 시기에는 교과서 편찬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 교과서는 개인 저자의 개념에서 벗어나,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학도협)가 교과서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 개발을 주도, 지원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도서관 전문 직능 단체의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www.kci.go.kr

개발된 교과서를 전국적으로 널리 적용하고 전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교과서의 발행은 미래엔컬처그룹에서 담당했으며, 이는 과거 대한교과서의 새로운 이름이다.

4차 시기는 교과서 개발에 있어 다양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시기에는 도서관 이용과 활용을 강조한 「도서관 리터러시」, 독서의 관점에서 정보 리터러시에 접근한 「독서와 정보 리터러시」,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강조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등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다.

〈표 1〉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한국의 교과서 변천

년도	교과서명	대상	저자(발행사), 분량	특징
1996 (1차)	정보와 매체	고등학교	김용철, 박현주, 송기호, 이병기, 함명식 (대한교과서), 219 p.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정(1995.12.29)
2002 (2차)	정보와 도서관	초등학교 (4-6학년)	김용철, 노진영, 이춘택, 김영애, 이미아, 이상훈 (대한교과서), 110 p.	교육인적자원부 인정(2001.11)
		중학교	김용철, 변우열, 강주혜, 김경주, 문정미, 박현주, 이경화, 이은경 (대한교과서), 209 p.	
		고등학교	김용철, 오재익, 김현태, 이병기, 남채현, 정문상, 송기호, 황선희 (대한교과서), 237 p.	
2011 (3차)	도서관과 정보생활	초등학교 (1-3학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과서편찬위원회(집필진: 김성준, 박영해, 안지선, 이상훈), (미래엔컬처그룹), 115 p.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정(2011.1.4)
		초등학교 (4-6학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과서편찬위원회(집필진: 구아미, 백은희, 송기호, 이수경), (미래엔컬처그룹), 133 p.	
		중학교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과서편찬위원회(집필진: 변우열, 김은경, 김혜연, 방숙영, 유주영), (미래엔컬처그룹), 173 p.	
		고등학교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과서편찬위원회(집필진: 이병기, 한가람, 윤기선, 최영임, 이은혜, 최성환, 이덕주), (미래엔컬처그룹), 207 p.	
2025 (4차)	도서관 리터러시	중학교	정원진 (형곡중학교), 86 p.	경북교육감 고시 외 과목 승인(2024.12)
	독서와 정보 리터러시	중학교	김소영 (남춘천여중), 169 p.	강원도교육감 고시 외 과목 인정(25.03)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고등학교	오선지, 강현희, 박서영, 박주현, 이명진, 이현아, 추선희 (광주광역시교육청), 115 p.	광주교육감 고시 외 과목 인정(25.03)
	2022 개정 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초·중·고	이병기(총괄), 초등학교(박주현, 소병문, 강은주, 박영혜, 박은하, 주 경), 중학교(강봉숙, 노가윤, 이유진), 고등학교(임정훈, 전보라, 황혜란) (한국도서관협회), 157 p.	

www.kci.go.kr

특히 주목할 점은 특정 대상 학교를 위한 맞춤형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3차 시기에 교과서 인정이 교육부와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증에 편중되었던 것과는 달리, 광주교육청, 강원교육청, 경북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에서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과서 개발과 인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 저자의 구성 또한 변화하여, 전국적인 참여보다는 각 시·도 교육청의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행 역시 특정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지역의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하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 기반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4차 시기의 「2022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은 교과서 형태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본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Ⅳ.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내용 비교 분석

제3장에서 다룬 교과서의 변천 과정을 바탕으로 각 시기별 주요 지도 내용과 그 특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의 내용 비교는 학교 급별 즉, 1~4차 시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되, 대단원과 중단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보통 초, 중, 고 순서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등학교의 교과서가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서를 먼저 분석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각 시기 별로 교과서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고, 1~4시기에 해당하는 교과서 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비교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고등학교 교과서는 1~4차에 걸쳐 모두 개발되었다. 1~4차 시기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서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1996년에 개발된 1차 시기 교과서인 「정보와 매체」는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최초의 교과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교과서는 중학교, 초등학교 교과서는 물론 이후 출판된 교과서들의 내용 체계에 기준점이 되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www.kci.go.kr

〈표 2〉 시기별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비교

시기	대단원	중단원
1차 (정보와 매체)	Ⅰ. 정보와 매체란 무엇인가	1. 왜 정보와 매체를 공부하는가? 2. 정보매체의 발달과 유통 3. 정보화 사회와 인간생활
	Ⅱ. 정보매체와 정보접근	1. 정보요구와 접근 2. 문헌정보 3. 영상정보 4. 전자통신정보 5. 체험정보
	Ⅲ. 정보매체와 정보분석	1. 정보의 유용성과 분석 2. 과학적 정보분석 3. 영역별 정보분석
	Ⅳ. 정보매체와 정보적용	1. 정보의 창조와 표현 2. 정보표현과 논술 3. 학교 학습과 매체 4.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관리
	Ⅴ. 정보매체와 정보평가	1. 정보평가의 의미와 방법 2. 정보평가의 기준 3. 단계별 정보평가
	Ⅵ. 정보매체와 현대 생활	1. 정보사회와 정보문화 2. 정보생활과 평생교육 3. 정보화와 우리의 자세
2차 (정보와 도서관)	1.정보와 매체란 무엇인가, 2.나의독서계획, 3.각 지방의 방언, 4.우리집 가꾸기, 5.미래의 도서, 전자 책, 6.나의 생활 비용은 얼마일까?, 7.우리집 가족 여행, 8.독서신문 만들기 9.내가 살고 싶은 곳은, 10.친구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11.올바른 에너지 사용, 12.사이버 책꽂이, 13.사이버 독서토론으로 만나는 문학가, 14. 사이버 미술관에서, 15.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놀이, 16.우리 학교 축제, 17.판소리와 오페라 18. 우리 가족 기상 통보관, 19.백일장을 준비하며, 20.멸종 위기의 생물보호, 21.도서반 주최 정보사냥대회, 22.우리 학급 잡지 만들기, 23.미래의 자동차, 24.응급처치법, 25.환경독서 박람회, 26.우리 어머니 떡 가게에서, 27.나의 취미생활	1. 정보과제 정하기 2. 정보요구 파악하기 3. 정보탐색하기 4. 정보분석하기 5. 정보종합하고 표현하기 6. 정보이용과정 되돌아보기
3차 (도서관과 정보생활)	Ⅰ. 도서관과 정보생활	1. 정보사회와 정보활용 2. 학교도서관 이용과 정보활용 3. 지역사회의 정보환경
	Ⅱ.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1. 정보과제 파악과 탐색전략 수립 2. 매체별 정보탐색 3. 탐색자료의 평가와 관리
	Ⅲ. 정보분석과 이해	1. 정보분석의 이해와 배경 2. 인쇄자료와 독서 3. 영상자료와 시청 4. 전자자료와 브라우징
	Ⅳ.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종합과 표현의 이해 2. 글에 의한 정보종합과 표현 3. 말에 의한 정보종합과 표현 4. 시각적 정보종합과 표현 5. 정보활용평가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정보윤리와 사회 2. 저작권 존중과 공정한 이용 3. 인터넷과 정보윤리

www.kci.go.kr

시기		대단원	중단원
4차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Ⅰ. 미디어와 콘텐츠의 이해	1.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 2. 미디어의 종류 3. 미디어 정보기관
		Ⅱ. 미디어와 정보의 접근과 탐색	1. 미디어 속 정보검색 2.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탐색 3.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의 접근 및 문제해결
		Ⅲ. 미디어와 정보의 분석과 평가	1. 미디어 콘텐츠 분석과 평가 2. 허위 정보와 비판적 사고 3. 광고와 기사, 피싱을 식별하기
		Ⅳ.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	1.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생산 2. 미디어의 생산과 윤리적 문제 3. 미디어를 통해 참여하기
		Ⅴ.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 윤리	1. 정보사회와 저작권 2. 검열과 지적자유 3. 정보의 공정한 이용
	2022 도서관과 정보생활	1. 매체문화와 정보생활	1. 정보매체와 우리의 삶 2. 매체의 발달과 정보생활 3. 도서관과 멀티 리터러시
		2. 정보활용과 정보탐색	1. 정보를 활용한 탐구와 문제해결 2. 정보원의 이해 3. 정보탐색과 접근
		3. 매체와 정보의 수용과 비판적 이해	1. 비판적 정보평가와 분석 2. 정보의 성격에 따른 분석과 전략 3.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정보분석
		4. 창의적 정보표현과 디지털 환경	1. 정보종합과 표현의 이해 2. 멀티 모달에 의한 정보표현 3. 디지털 의사소통
		5. 정보를 통한 협력과 참여하는 공동체	1.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2. 협력을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 3. 정보공유와 사회적 참여

1차 시기의 고등학교 교과서(정보와 매체)는 크게 6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단원 아래에 3~4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Ⅰ단원(정보와 매체란 무엇인가?)은 교과서의 명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단원은 정보와 매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학생들이 정보와 매체를 학습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의 서론 혹은 도입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Ⅵ단원(정보매체와 현대 생활)은 정보사회와 정보문화, 정보화 시대에 학생들이 지녀야 할 자세 등을 다룬다. 이 단원은 전체 교과서의 결론 및 마무리 성격을 띠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입부에 해당하는 Ⅰ단원과 종결부에 해당하는 Ⅵ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단원 즉, Ⅱ단원~Ⅴ단원은 교과서의 본론 부분으로 정보활용과정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다. 교과서 개발 당시 세계적으로 정보활용과정 모형으로 널리 알려진 Eisenberg와 Berkowitz(1990)가 개발한 Big6 모형의 영향을 받았으며, AASL(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1998)의

www.kci.go.kr

정보 리터러시 표준(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과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3〉 1차 시기 고등학교 교과서와 정보활용과정 모형 비교

시기	대단원	정보활용과정 모형	
		Big6	AASL
1차 (정보와 매체)	Ⅰ. 정보와 매체란 무엇인가		
	Ⅱ. 정보매체와 정보접근	1. 과제정의 2. 정보탐색전략 3. 정보탐색 및 접근	1. 정보접근
	Ⅲ. 정보매체와 정보분석	4. 정보이용	2. 정보평가
	Ⅳ. 정보매체와 정보적용	5. 정보종합	3. 창조적 정보이용
	Ⅴ. 정보매체와 정보평가	6. 정보활동 평가	
	Ⅵ. 정보매체와 현대 생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시기의 교과서(정보와 매체) Ⅱ단원(정보매체와 정보접근)은 Big6 모형의 과제 정의-정보탐색전략-정보탐색 및 접근과 일치하고, AASL의 정보접근에 해당한다. 중단원을 보면, 정보요구와 접근에 대해 다루고, 문헌정보, 영상정보, 전자통신정보, 체험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른 정보탐색과 접근에 대해 다루고 있다.

2002년에 개발한 2차 시기의 교과서(정보와 도서관)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7개 대단원 아래에 6개의 중단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27개의 대단원은 학생들의 교과학습, 일상생활, 학교 생활, 독서 및 학교도서관 생활 등 학생들의 주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탐구주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교과학습(국어과: 3.각 지방의 방언, 미술과: 14.사이버 미술관에서 등), 일상생활(4.우리 집 가꾸기, 7.우리 집 가족여행 등), 학교 생활(10.친구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16.우리학교 축제 등), 독서 및 도서관 생활(2.나의 독서계획, 8.독서신문 만들기, 12. 사이버 책꽂이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2차 시기의 교과서(정보와 도서관)의 중단원은 27개 대단원 아래에 1(정보과제 정하기)에서 6(정보이용과정 되돌아보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다. 이는 1차 시기의 교과서(정보와 매체)의 내용 구성이 제Ⅱ단원(정보매체와 정보접근)에서는 주로 정보탐색에 대한 내용, 제Ⅲ단원(정보매체와 정보분석)에서는 독서와 시청을 통한 정보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내용, 제Ⅳ단원(정보매체와 정보적용)에서는 정보활동 결과물의 제작에 해당하는 정보 표현에 대한 내용을 집중으로 다루고 있어서, 정보과제의 해결과정이 분절되고 실제 문제해결 과정에 적용이 어렵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교과학습, 일상생활, 학교 생활, 독서 및 학교도서관 생활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탐구과제 27개를 제시하고, 이 과제를 단계별로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 학습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www.kci.go.kr

〈표 4〉 2차 시기 고등학교 교과서의 정보활용과정

시기	중단원	Big6	
		6대 모형	12대 모형
2차 (정보와 도서관)	1. 정보과제 정하기 2. 정보요구 파악하기	1. 과제정의	1.1 정보과제 확인 1.2 정보요구 확인
	3. 정보탐색하기	2. 정보탐색 전략	2.1 가능한 모든 정보원 파악 2.2 최적의 정보원 선택
		3. 정보탐색 및 접근	3.1 지적, 물리적 정보탐색 3.2 정보원 내의 정보탐색
	4. 정보분석하기	4. 정보이용	4.1 정보와의 상호작용(읽기, 보기, 듣기) 4.2 정보원으로부터 정보 추출
	5. 정보종합하고 표현하기	5. 정보종합	5.1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조직 5.2 정보 표현
	6. 정보이용과정 되돌아 보기	6. 정보활동 평가	6.1 결과물 평가 6.2 정보과제 해결 과정 평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시기의 교과서(정보와 도서관)는 중단원이 모두 동일하고, 6개의 중단원은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 맞추고 있으며, 이는 Big6 모형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Big6 모형에 제시된 정보활용과정의 용어를 학생들이 익숙하게 수정하여 반영하고 있다. 또한, Big6 모형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학생들의 발달 수준이나 인지 단계에 따라서 6단계, 12단계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는데, 2차 시기의 교과서(정보와 도서관)의 중단원은 6단계 모형을 채택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를 통합하여 한 개로 만들거나 12단계에 있는 단계를 차용한 경우도 있다.

3차 시기의 교과서(도서관과 정보생활)는 다시 1차 시기의 교과서(정보와 매체) 내용 체제로 복귀하였다. 다시 말해서, 1차 시기의 교과서(정보와 매체)에서 취하고 있는 단원 구조(정보매체와 정보접근→정보매체와 정보분석→정보매체와 정보적용→정보매체와 정보평가)를 준용하여 3차 시기의 교과서의 내용 체계(정보과제와 정보탐색→정보분석과 이해→정보종합과 표현)를 편성하고 있다.

4차 시기의 고등학교 교과서(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는 1차 시기의 교과서(정보와 매체)에서 다루어 온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통합하여 각 대단원 명에 '미디어와 정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에 걸쳐 유지해 온 정보 리터러시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정보탐색과 접근-정보분석과 해석-정보 종합과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4차 시기의 교육과정(2022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정보활용의 과정에 따라서 단원구조(정보활용과 정보탐색→매체와 정보의 수용과 비판적 이해→창의적 정보표현과 디지털 환경)를 취하고 있다. 3차 시기와 비교해 보면, 학술적인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예를 들어, 정보분석과 해석을 매체와 정보의 수용과 비판적 이해 등)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대단원 3(매체와 정보의 수용과

www.kci.go.kr

비판적 이해)아래에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정보분석', 대단원 4(창의적 정보표현과 디지털 환경) 아래에 디지털 의사소통 등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한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있다.

1차~4차 시기별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 영역을 상호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시기별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체계 비교

제1차 (정보와 매체)	제2차 (정보와 도서관)	제3차 (도서관과 정보생활)	제4차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2022 도서관과 정보생활
Ⅰ. 정보와 매체란 무엇인가		Ⅰ. 도서관과 정보생활	Ⅰ. 미디어와 콘텐츠의 이해	1. 매체문화와 정보생활
Ⅱ. 정보매체와 정보접근	1. 정보과제 정하기 2. 정보요구 파악하기 3. 정보탐색하기	Ⅱ.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Ⅱ. 미디어와 정보의 접근과 탐색	2. 정보활용과 정보탐색
Ⅲ. 정보매체와 정보분석	4. 정보분석하기	Ⅲ. 정보분석과 이해	Ⅲ. 미디어와 정보의 분석과 평가	3. 매체와 정보의 수용과 비판적 이해
Ⅳ. 정보매체와 정보적용 Ⅴ. 정보매체와 정보평가	5. 정보종합하고 표현하기	Ⅳ. 정보종합과 표현	Ⅳ.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	4. 창의적 정보표현과 디지털 환경
Ⅵ. 정보매체와 현대생활	6. 정보이용과정 되돌아보기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Ⅴ.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 윤리	5. 정보를 통한 협력과 참여하는 공동체

2. 중학교 교과서 내용 비교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중학교 교과서는 1차 시기를 제외하고, 2차~4차 시기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졌다. 2차~4차 시기에 따른 중학교 교과서의 주요 단원 구성은 〈표 6〉과 같다.

2차 시기의 중학교 교과서(정보와 도서관)는 25개의 탐구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25개의 탐구 주제를 바탕으로 반복하여 5단계(무엇을 할까요-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정보를 찾아 이해 했나요-정보를 종합하고 표현해요-잘 했나요)로 구분한 정보 리터러시의 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표 6〉 시기별 중학교 교과서 내용 비교

시기	대단원	중단원
2차 (정보와 도서관)	1. 석진이와 혜선이의 하루, 2.독서계획세우기, 3.외래어 조사(국어), 4.나의 취미, 5.저자와의 대화, 6.영상으로 만나는 문학과 인물, 7.다이어트에 대하여, 8.우리학교 도서전시회 9.여행을 떠나요(사회), 10.대중음악 이야기(음악), 11.독서신문 만들기, 12.세계의 인물(도덕), 13.나의 뿌리를 찾아서, 14.우리 학교 특별활동, 15.피카소 그를 찾아 떠나는 여행(미술), 16.우리 고장의 자랑, 17.책 광고 만들기 18.월드컵 이야기(체육), 19.에너지의 올바른 사용, 20.숫자 0이야기(수학), 21.환경 오염과 미래생활, 22.응급상황이 발생했어요, 23.도서관 견학하기, 24.김치 이야기, 25.미래에 나는 무엇을 할까	1. 무엇을 할까요 2.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3. 정보를 찾아 이해 했나요 4. 정보를 종합하고 표현해요 5. 잘 했나요

www.kci.go.kr

시기		대단원	중단원
3차 (도서관과 정보생활)		Ⅰ. 도서관과 정보생활	1. 정보사회와 정보활용 2. 학교도서관 이용과 정보활용 3. 지역사회의 정보환경
		Ⅱ.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1. 정보과제 파악과 탐색전략 수립 2. 매체별 정보탐색 3. 탐색자료의 평가와 관리
		Ⅲ. 정보분석과 이해	1. 정보분석의 이해와 배경 2. 인쇄자료와 독서 3. 영상자료와 시청 4. 전자자료와 브라우징
		Ⅳ.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종합과 표현의 이해 2. 글에 의한 정보종합과 표현 3. 말에 의한 정보종합과 표현 4. 시각적 정보종합과 표현 5. 정보활용평가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정보윤리와 사회 2. 저작권 존중과 공정한 이용 3. 인터넷과 정보윤리
4차	도서관 리터러시	Ⅰ. 도서관과의 설레는 첫 만남	1. 반가워 도서관 2. 우리 학교 도서관 탐구생활
		Ⅱ. 도서관에서 똑똑하게 자료 찾기	1. 정보를 담는 그릇, 정보원 2. 도서관 마을의 주민 관리법 3. 너 내가 찾던 책 맞니? 4. 들어 봤니? 만능 탐색 도구 '독서로'
		Ⅲ. 정보 탐구 계획 탄탄하게 세우기	1. 정보 탐구 과정 안내 2. 무엇을 탐구해 볼까? 3. 나에게 필요한 책 찾기 4. 온라인 자료 선정하기
		Ⅳ. 자료의 내용 완전 정복하기	1. 정보탐구과정의 핵심 '정보분석' 2. 그래픽조직자로 내용 분석하기
		Ⅴ. 나만의 정보결과물 제작하고 공유하기	1. 정보탐구과정의 마지막 여정 2. 도전, 나만의 정보 결과물 만들기 3. 타인과 나누고 스스로 돌아보기
	독서와 정보 리터러시	Ⅰ. 문해력과 정보, 그리고 도서관	1. 문해력이 왜 필요할까? 2. 어떤 정보를 선택할까?
		Ⅱ. 학습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	1. 문학 읽기자료를 어떻게 읽을까? 2. 비문학 읽기 자료는 어떻게 읽을까? 3. 학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Ⅲ.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1. 함께 독서하려면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2. 책 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Ⅳ.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1.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까? 2.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까?
		Ⅴ.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1.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2.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2022 도서관과 정보생활	1. 매체문화와 정보생활	(1) 정보매체와 우리의 삶
			(2) 매체의 발달과 정보생활
			(3) 도서관과 멀티 리터러시

www.kci.go.kr

시기	대단원	중단원
	2. 정보활용과 정보탐색	(1) 정보를 활용한 탐구와 문제해결
		(2) 정보원의 이해
		(3) 정보탐색과 접근
	3. 매체와 정보의 수용과 비판적 이해	(1) 비판적 정보평가와 분석
		(2) 정보의 성격에 따른 분석과 전략
		(3)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정보분석
	4. 창의적 정보표현과 디지털 환경	(1) 정보종합과 표현의 이해
		(2) 멀티 모달에 의한 정보표현
		(3) 디지털 의사소통
	5. 정보를 통한 협력과 참여하는 공동체	(1)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2) 협력을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
		(3) 정보공유와 사회적 참여

이는 2차 시기의 고등학교 교과서 체계와 동일한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고등학교의 2차 시기 교과서(정보와 도서관)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를 중학교 수준에는 5단계로 압축(정보탐색과 정보분석을 통합)하여 정보 리터러시 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3차 시기의 중학교 교과서(도서관과 정보생활)는 총 5개의 영역(대단원)으로 편성하고 있다. 대단원 Ⅰ(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정보사회와 정보활용의 필요성, 학교도서관 이용의 중요성 등을 다룬 서두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대단원 Ⅴ(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는 저작권과 정보윤리 등 마무리 단원에 해당한다. 실제로 정보 리터러시의 과정(정보탐색과 접근-정보분석과 해석-정보종합과 표현)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Ⅱ(정보과제와 정보탐색), Ⅲ(정보분석과 이해), Ⅳ(정보종합과 표현) 영역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정보 리터러시 과정에 있어서 정보활동의 결과물 혹은 전체적인 정보활용과정을 되돌아보는 '정보활동 평가'는 실제 정보 리터러시 과정의 중요한 영역이지만 따로 내용을 대단원으로 편성하기에 분량이 적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 영역 Ⅳ(정보종합과 표현)의 중단원 5(정보활용평가)에 배치하고 있다.

4차 시기의 중학교 교과서(도서관 리터러시)는 도서관의 다양한 물·인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보 요구 및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즉 도서관을 주체적, 전문적,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을 도서관 리터러시라 정의하고 있다(정원진, 2025, 5). 대단원 Ⅰ(도서관과의 설레는 첫 만남)은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탐구생활의 기본적인 시설임을 설명하고 있다. 대단원 Ⅱ(도서관에서 똑똑하게 자료 찾기)는 정보원에 대한 이해와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의한 자료 정리,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독서로)에 의한 자료 탐색 등 정보자료의 탐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단원 Ⅲ(정보 탐구 계획 탄탄하게 세우기)은 정보를 활용하여 탐구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을 다루고, 대단원 Ⅳ(자료의 내용 완전 정복하기)에서는 수집한 정보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대단원 Ⅴ(나만의 정보결과물 제작하고 공유하기)는 정보 활동을 통한

www.kci.go.kr

결과물의 표현과 제작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단원의 명칭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사용하고 있으나 정보활용과정 즉, 정보탐색-정보분석과 해석-정보종합과 표현 등 전반적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4차 시기의 중학교 교과서(독서와 정보 리터러시)는 문해력과 독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학과 비문학으로 구분하여 자료에 따른 독서 방법과 독서를 통한 문제해결과정을 다루고 있다. 대단원 Ⅴ(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는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문제로 구분하여 정보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프로젝트 중심의 과제 해결에 대해 다루고 있다.

4차 시기의 중학교 교육과정(2022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고등학교 교과서와 같이, 5개 대단원(매체문화와 정보생활, 정보활용과 정보탐색, 매체와 정보의 수용과 비판적 이해, 창의적 정보표현과 디지털 환경, 정보를 통한 협력과 참여하는 공동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활용의 과정에 따라서 단원구조(정보활용과 정보탐색→매체와 정보의 수용과 비판적 이해→창의적 정보표현과 디지털 환경)를 취하고 있다.

2차~4차 시기별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 영역을 상호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시기별 중학교 교과서 내용 체계 비교

제2차 (정보와 도서관)	제3차 (도서관과 정보생활)	제4차	
		도서관 리터러시	독서와 정보 리터러시
-	Ⅰ. 도서관과 정보생활	Ⅰ. 도서관과의 설레는 첫 만남	Ⅰ. 문해력과 정보, 그리고 도서관
1. 무엇을 할까요 2.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3. 정보를 찾아 이해했나요	Ⅱ.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Ⅱ. 도서관에서 똑똑하게 자료 찾기	Ⅱ. 학습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 Ⅲ.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Ⅳ.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Ⅴ.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Ⅲ. 정보분석과 이해	Ⅲ. 정보 탐구 계획 탄탄하게 세우기	
4. 정보를 종합하고 표현해요 5. 잘 했나요	Ⅳ. 정보종합과 표현	Ⅳ. 자료의 내용 완전 정복하기	
-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Ⅴ. 나만의 정보결과물 제작하고 공유하기	

3.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비교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교과서는 1차 시기를 제외하고, 2차~4차 시기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졌다. 2차~4차 시기에 따른 초등학교 교과서의 주요 단원 구성은 〈표 8〉과 같다.

2차 시기의 초등학교 교과서(정보와 도서관)는 1~3학년 학생용은 제외하고, 4~6학년용만 개발되었다. 초등학생 4~6학년에 맞추어 교과, 독서 및 정보, 도서관 활동, 일상생활에 관한 탐구주제 16가지를 제시하고, 16개의 탐구주제를 바탕으로 정보활용과정을 4단계(무엇을 할까요-정보를 찾아 이해했나요-정보를 종합하고 표현해요-잘 했나요)로 구분하여 반복적으로 숙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www.kci.go.kr

〈표 8〉 시기별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비교

시기		대단원	중단원
2차 (정보와 도서관)		1.정보 왕국의 비밀, 2.나의 독서계획, 3.3·1 독립운동과 유관순 누나(국어), 4.우리가족 봄 소풍, 5.우리나라를 지키신 이순신 장군, 6.독서와 관련된 명언찾기, 7.나의 뿌리를 찾아서(사회), 8.우리가족에너지 절약(과학), 9. 태종대 자랑하기, 10.수와 수학의 역사(수학), 11.주인공에게 편지쓰기, 12.주인공 그리기, 13.나의 취미는 농구입니다, 14. 나는 우리 학교 최고의 정보 사냥꾼, 15.바이오그릇 옹기(미술), 16.겨울철 민속놀이	1. 무엇을 할까요? 2. 정보를 찾아 이해했나요? 3. 정보를 종합하고 표현해요 4. 잘 했나요?
3차 (도서관과 정보생활)	1-3 학년	Ⅰ. 도서관은 내 친구	1. 도서관은 보물창고 2. 나는 도서관 탐험가 3. 도서관 예절을 지켜요
		Ⅱ. 책은 내 친구	1. 책은 내 친구 2. 책을 살펴보아요. 3. 자료는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요?
		Ⅲ. 정보야, 놀자	1. 어디에서 정보를 찾나요? 2.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3. 정보야 나랑 놀자
		Ⅳ. 즐겁고 신나는 독서생활	1. 책을 올바르게 읽어요 2.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3.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요
		Ⅴ. 다양한 독서표현	1. 말과 글로 표현해요 2. 그림으로 표현해요 3. 몸짓으로 표현해요
		Ⅵ. 올바른 정보생활	1. 함께 나누는 정보생활 2. 저작권을 보호해요 3.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용해요
	4-6 학년	Ⅰ. 평생 학습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	1. 평생학습 사회와 도서관 2. 인류발전의 원동력 도서관 3. 독서생활과 도서관
		Ⅱ. 도서관 자료의 활용	1. 도서관 자료의 정리 규칙 2. 인쇄자료 활용하기 3. 영상자료 활용하기 4. 전자자료 활용하기
		Ⅲ. 정보과제 해결 따라하기	1. 정보과제 해결 능력 이해하기 2. 나만의 과제 만들기 3. 정보원 가려내기 4. 정보읽고 정리하기 5. 정보표현하고 평가하기
		Ⅳ. 정보과제 해결 능력 적용하기	1. 정보과제해결 과정 익히기 2. 학습과제 해결에 적용하기 3. 생활과제 해결에 적용하기
		Ⅴ. 스스로 책임지는 정보생활	1. 올바른 정보활용하기 2. 저작권 바로 알기 3. 정보윤리 실천하기

www.kci.go.kr

시기		대단원	중단원
4차	2022 도서관과 정보생활	1. 매체문화와 정보생활	(1) 정보매체와 우리의 삶
			(2) 매체의 발달과 정보생활
			(3) 도서관과 멀티 리터러시
		2. 정보활용과 정보탐색	(1) 정보를 활용한 탐구와 문제해결
			(2) 정보원의 이해
			(3) 정보탐색과 접근
		3. 매체와 정보의 수용과 비판적 이해	(1) 비판적 정보평가와 분석
			(2) 정보의 성격에 따른 분석과 전략
			(3)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정보분석
		4. 창의적 정보표현과 디지털 환경	(1) 정보종합과 표현의 이해
			(2) 멀티 모달에 의한 정보표현
			(3) 디지털 의사소통
		5. 정보를 통한 협력과 참여하는 공동체	(1)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2) 협력을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
			(3) 정보공유와 사회적 참여

3차 시기의 초등학교 1~3학년 교과서(도서관과 정보생활)는 도서관과 책에 대해 대단원 Ⅰ, Ⅱ에서 다루고, 필요한 정보의 탐색에 대해서는 대단원 Ⅲ에서 다루고 있다. 탐색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주로 독서를 중심으로 대단원 Ⅳ(즐겁고 신나는 독서생활)에서 다루고 있다. 정보활동을 통한 결과물의 표현은 말과 글에 의한 표현, 그림에 의한 표현, 몸짓에 의한 표현 등으로 구분하여 대단원 Ⅴ(다양한 독서표현)에서 다루고 있다.

3차 시기의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도서관과 정보생활)는 평생학습에 있어서 도서관과 독서의 중요성을 대단원 Ⅰ(평생 학습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루고, 도서관 자료의 이해와 탐색에 대해서는 대단원 Ⅱ(도서관 자료의 활용)에서 다루고 있다. 대단원 Ⅲ(정보과제 해결 따라하기)에서는 5단계로 구분하여 정보활용과정 전체에 대해 설명하고, 대단원 Ⅳ(정보과제 해결 능력 적용하기)에서 학습과제와 생활과제로 구분하여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단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정보활용과정(정보 탐색과 접근-정보 분석과 해석-정보종합과 표현)에 따라서 단원을 편성하는 방식과 탐구과제를 열거하고 탐구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정보활용과정의 단계를 적용하는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조화롭게 채택하고 있다.

4차 시기의 초등학교 교과서(2022 도서관과 정보생활)는 고등학교, 중학교와 동일하게 5개 대단원(매체문화와 정보생활, 정보활용과 정보탐색, 매체와 정보의 수용과 비판적 이해, 창의적 정보표현과 디지털 환경, 정보를 통한 협력과 참여하는 공동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용 체계는 동일하되, 구체적인 성취 기준이나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수준을 조절하려는 의도가 있다.

www.kci.go.kr

Ⅴ. 시사점 및 향후 개선 방향

지금까지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한국의 교과서를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변천의 역사와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주요 변천과 내용 비교에 따른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한국의 교과서는 1996년에 최초로 개발된 1차 시기(정보와 매체)를 시작으로 2025년 4차 시기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변화를 거쳐 발전하고 있다. 교과서의 명칭은 '정보와 매체 - 정보와 도서관 - 도서관과 정보생활 - 도서관 리터러시, 독서와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등으로 변화하였다. 1차 시기의 교과서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만 개발되었으나 2~3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잇는 일종의 전집 형태로 일관된 체계로 개발하고 있다. 4차 시기에 이르러 서는 도서관 리터러시, 독서와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등 보다 다변화한 교과서가 등장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등 특정 학교 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가 등장하고 있다.

둘째, 1차 시기에서 3차 시기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의 개발은 학계의 교수와 현장의 사서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4차 시기에 이르러 서는 현장 중심의 사서교사가 단일 학교 중심으로 개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한국의 교과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부 장관 혹은 교육감 인정도서로 개발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혹은 특정 시・도 교육감이 인정한 교과서는 다른 시도에서도 다른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셋째,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는 개인 연구자 혹은 현장의 사서교사 자격으로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였으나 3차 시기에는 사서교사의 전문단체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교과서편찬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적인 과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4차 시기에는 교과서 개발에 있어 다양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시기에는 도서관 리터러시, 독서와 정보 리터러시, 그리고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등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다. 이는 1~3차 시기에 교과서 인정이 교육부와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증에 편중되었던 것과는 달리, 광주교육청, 강원교육청, 경북교육청 교육감 등 지방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1차 시기에서 4차 시기에 이르기까지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는 4~5개의 영역(대단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영역은 서두 부분으로 정보사회와 정보 활용의 중요성, 정보활용에 있어서 도서관이 갖는 효용성 등에 대해 다루고, 마지막 영역은 교과서의 마무리 부분으로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전반적으로 정보활용과정(정보탐색과 접근-정보분석과 해석-정보종합과 표현)에 따라서 내용 영역(대단원)을 편성하고 있다.

다섯째, 2차 시기의 교과서(정보와 도서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생들의 학습, 독서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16~27개 정도의 탐구주제를 제시하고, 이 탐구주제를 바탕으로 반복

www.kci.go.kr

적으로 정보활용과정을 숙달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다. 다만, 정보활용과정을 초등학교는 4단계(무엇을 할까요-정보를 찾아 이해했나요-정보를 종합하고 표현해요-잘 했나요), 중학교는 5단계(무엇을 할까요-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정보를 찾아 이해했나요-정보를 종합하고 표현해요-잘 했나요), 고등학교 6단계(정보과제 정하기-정보요구파악하기-정보탐색하기-정보분석하기-정보종합하고 표현하기-정보이용과정 되돌아보기)로 점차 심화하고 있다.

여섯째, 1차 시기에 개발된 교과서(정보와 매체)에서 보듯이 교과서 개발 초창기부터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Big6 모형의 6단계가 한국 교과서 개발의 대단원 편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 정보라는 용어 외에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도구, 문해력, 멀티 모달, 멀티 리터러시 등의 용어가 새롭게 반영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시사점 및 특징을 바탕으로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향후 교과서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명칭은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독서와 정보 리터리시 교육, 미디어 정보 교육, 디지털 교육 등 교육의 목적을 다양하게 설정하기보다 교육의 목적 자체는 '정보활용교육'에 있음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 분권 및 자율성을 존중하되, 도서관법 제40조 ②항 5호(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에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 용어로서의 '정보활용교육'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둘째, 도서관 리터러시, 독서와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등 다양한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으로 세분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으나 정보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전국적이며, 공신력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은 전문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나 사서교사 전문단체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등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25년에 발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도서관과 정보생활(한국도서관협회, 2025)」은 전국적이며,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멀티 리터러시 기반의 정보활용교육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전통적인 독서 리터러시 외에 컴퓨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비쥬얼 리터러시, 데이터 및 AI 리터러시 등 사회변화 및 기술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리터러시 교육이 등장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의 활용과 탐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리터러시를 수용한 멀티 리터러시 관점에서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Big6 모형의 6단계를 반영한 정보활용과정(정보탐색과 접근-정보분석과 해석-정보종합과 표현)을 고려하여 교과서의 영역(대단원)을 편성하되, 영역(대단원) 별로 분절 혹은 단절되지 않도록 탐구주제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정보활용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3차 시기의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도서관과 정보생활)는 대단원

www.kci.go.kr

Ⅲ(정보과제 해결 따라하기)에서는 5단계로 구분하여 정보활용과정 전체에 대해 설명하고, 대단원 Ⅳ(정보과제 해결 능력 적용하기)에서 학습과제와 생활과제로 구분하여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단원을 편성한 점은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 발전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섯째,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정도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점차 우리나라의 교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56호)」에 따른 교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정보활용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다. 교육에서 교재, 특히 교과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과서는 특정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틀이며, 시대적 가치와 사회상을 반영한다. 또한,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효율성 증진 및 특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한국의 교과서 개발의 역사와 역사에 따른 교과서의 주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교과서 개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한국의 교과서는 1996년 최초 개발된 「정보와 매체」를 시작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일관된 체계로 개발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도서관 리터러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등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교과서들이 등장하며,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협력에서 현장 사서교사 중심으로 개발 주체가 변화하고, 교과서 인정 범위가 지방 교육청으로 확대되는 등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정보활용과정(정보 탐색과 접근, 정보분석과 해석, 정보종합과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학교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는 4단계, 중학교는 5단계, 고등학교는 6단계로 정보활용 과정을 세분화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 개발 초기부터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포함되었고, Big6 모형이 대단원 편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멀티 모달, 멀티 리터러시 등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보 생태계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향후 정보활용교육 교과서는 멀티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통합적 체계를 확립하고, '정보활용교육'이라는 법정 용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인 공신력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한국도서관협회 등 전문 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정보활용능력에 필요한 지적 내용 요소를 먼저

www.kci.go.kr

제시한 후 탐구 과제를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탐구 과제를 중심으로 정보활용 과정 전반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편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키워드 분석이나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한 교과서의 내용 분석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는 궁극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정식 교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교육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봉숙 (2018). 교육격차와 정보활용능력의 상관관계 연구: 도서관과 정보생활교과의 Ⅰ·Ⅱ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179-199. https://doi.org/10.16981/kliss.49.2.201806.179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829호. 제2조.

김강선, 노경국, 신순아, 이민수, 소병문 (2023).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의 교과서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2), 67-88. https://doi.org/10.16981/kliss.54.2.202306.67

김수동 (2009). 교과서의 성격과 제도. 출처: http://contents2.kocw.or.kr/KOCW/document/2017/dongguk/kimsoodong051/10.pdf

도담샘 (2025. 3. 16.).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생활 차이 완벽 정리! 학년별 특징과 학부모 맞춤형 전략. 출처: https://chodeungon.tistory.com/2

민회수, 조낙영 (2025). 국정 교과서 시기(제3~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개항'에 대한 서술의 변천. 역사교육, 174, 47-81.

이병규 (2020). 초등 국어 교과서 문법 단원 변천 연구. 문법교육, 40(1), 277-306. https://doi.org/10.21850/kge.2020.40..277

이병기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49-68. https://doi.org/10.4275/KSLIS.2019.53.2.049

임재구 (2024). 체육 교과서 변천 과정 및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9(5), 65-78. https://doi.org/10.15831/JKSSPE.2024.29.5.65

임정훈 (2024). 도서관과 정보생활과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내용 체계 비교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1(3), 487-509. https://doi.org/10.3743/KOSIM.2024.41.3.487

정원진 (2025). 도서관 리터러시. 구미: 형곡중학교.

조영미 (2022).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변천에 따른 각기둥의 정의에 관한 고찰. 초등수학교육,

www.kci.go.kr

25(1), 1-17. https://doi.org/10.7468/jksmec.2022.25.1.1

한국교과서협회 (2020). 외국의 교과서 제도. 출처: https://www.ktbook.com/user/e-data/info/foreign/foreign01.do

한국도서관협회 (2025). 2022 개정 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도서관 정보생활 교육과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AASL(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 AECT(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98).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for Student Learning.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1989).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Final Report. Available: http://www.ala.org/acrl/publications/whitepapers/presidential

Eisenberg, M. B. & Berkowitz, R. E. (1990). Information Problem-Solving: The Big Six Skills Approach to Library & Information Skills Instruction. Norwood NJ: Ablex Publishing.

Stripling, B. K. & Pitts, J. M. (1988). Brainstorms and Blueprints: Teaching Library Research as a Thinking Process.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Zurkowski, P. G. (1974). The Information Service Environment Relationships and Priorities. Washington D. C.: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Youngmi (2022).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prism presented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25(1), 1-17. https://doi.org/10.7468/jksmec.2022.25.1.1

Dodamsam (2025, March 16). A Complete Summary of the Differences in Life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Lower Grades (1-3) and Upper Grades(4-6)!. Available: https://chodeungon.tistory.com/2

Jung, wonjin (2025). Literacy of SchoolLibrary. Gumi: Hyeonggok MiddleSchool.

Kang, Bong-suk (2018). A correlation between the education gap and information litera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179-199. https://doi.org/10.16981/kliss.49.2.201806.179

www.kci.go.kr

Kim, Kang-Sun, Noh, Kyoung-Kuk, Shin, Sun-Ah, Lee, Min-Su, & So, Byoung Moon (2023). An analysis on the textbook implementation process of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curriculum standards: focusing on the extrinsic cohension between curriculum and textboo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2), 67-88. https://doi.org/10.16981/kliss.54.2.202306.67

Kim, Soo-dong (2009). The Nature and System of Textbooks. Available: http://contents2.kocw.or.kr/KOCW/document/2017/dongguk/kimsoodong051/10.pdf

Korea Textbook Association (2020). Textbook systems in other countries. https://www.ktbook.com/user/e-data/info/foreign/foreign01.do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25).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Curriculum according to the 2022 Revised Curriculum System.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Lee, Byeong-Kee (2019).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curriculum revision based o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2), 49-68. https://doi.org/10.4275/KSLIS.2019.53.2.049

Lee, Byoung Gyu (2020). Study on the changes of grammar unit of Korean textbooks in elementary school. Grammar Education, 40(1), 277-306. https://doi.org/10.21850/kge.2020.40..277

Lim, Jae Goo (2024). Exploration implications through physical education textbook transition process and overseas cases.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9(5), 65-78. https://doi.org/ 10.15831/JKSSPE.2024.29.5.65

Lim, jeonghoon (2024). A comparative analysis of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gital literacy content frame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3), 487-509. https://doi.org/10.3743/KOSIM.2024.41.3.487

Min, Hoi Soo & Cho, Nak Young (2025). Changes in the description of the opening of ports in the 19th century i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from the 3rd to the 7th curriculum period in Korea.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174, 47-81.

Regulations on Textbooks. Presidential Decree No. 33829. Article 2.

www.kci.go.kr

www.kci.go.kr